저울에 올리면

관심사 독해 리포트 · 2026년 10월 30일자 수집분

수집 현황: 승인 피드 19개 중 제외 2개(EerdWord, Leiter Reports)와 접근 중단 5개(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를 뺀 12개 모두 접속됨. 전날 새 글 11편을 모두 읽고 10편을 다뤘으며, 1편(마지널 레볼루션의 목요일 링크 모음)은 생략 — 다만 그 모음의 일곱 번째 항목은 전날 이 리포트의 첫 꼭지와 직접 이어지는 후속이라 본문 5장에서 한 줄로 인용함. 10+1=11.

어제의 리포트가 '감사(audit)'라는 하나의 동사를 중심으로 돌았다면, 오늘 모인 글들은 좀 더 넓은 한 가지 동작을 공유한다. **저울에 올리는 일**이다. 한 나라의 분기 성장률을 재고,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실제로 얼마나 얹혔는지 재고, 경범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재고, 장기 이식 정책이 살려낸 생명을 연수(年數)로 환산하고, 심지어 아직 나오지 않은 연구 결과를 인공지능으로 '미리 재 보는' 시도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중세의 한 신비가는 저울이 닿지 않는 곳의 이야기를 한다. 숫자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하루치 피드가 우연히 그려 보였다.

---

1. 성장률의 겉과 속 — 3분기 GDP 3.4%

[사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10월 29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4% 증가했다는 속보치를 발표했다. 2분기의 2.2%에서 가속했고, 로이터 집계 시장 전망치 3.2%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Now 추정치 3.3%를 모두 조금 웃돌았다. 민간 국내 최종수요(소비+민간 고정투자, 경제의 '엔진'만 골라낸 지표로 통한다)는 4.9% 증가해 2분기 4.6%보다도 높았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율 2.1%, 식료품·에너지를 뺀 근원 PCE는 2.5%로 2분기(각각 5.0%, 3.3%)보다 크게 낮아졌다. 성장은 빨라지고 물가상승률은 둔화한, 표면상으로는 나쁠 것 없는 조합이다.

전날 이 리포트가 'GDP 이브'로 다뤘던 전망과 비교하면 재미있는 대비가 생긴다. 당시 소개한 나우캐스트는 근원 GDP 4.7%를 가리켰는데, 실제 발표에서 그에 대응하는 민간 국내 최종수요는 4.9%로 확인됐다. 헤드라인 3.4%와의 격차는 재고와 수출입 같은 변동 요인이 만든 것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는 눈으로는 전망이 꽤 정확했던 셈이다.

[사실] 에콘브라우저의 제임스 해밀턴은 같은 날 올린 글에서 이 3.4%가 1947년 이후 역사적 평균(3.1%)을 조금 웃돌며, 지난 세 분기보다

좋아진 숫자라고 정리했다. 그가 자체 개발한 'GDP 기반 경기침체 지표'는 이번 발표로 3.5%까지 내려갔다. 이 지표는 한 분기 전의 GDP 수치만으로 침체 확률을 추정하는 단순한 장치인데, 3.5%는 침체와는 거리가 먼 읽기다. 다만 해밀턴은 내용물을 뜯어보라고 권한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품에 쓰여 GDP 순기여는 제한적이었고(수입은 GDP 계산에서 빼는 항목이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가장 민감한 주택 고정투자는 계속 약세이며, 전 분기 대비 개선의 가장 큰 부분은 재고 증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재고는 '팔리지 않고 쌓인 새 생산품'이므로, 다음 분기 성장을 빌려온 것일 수도 있고 판매 부진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

[사실] 같은 블로그의 월례 경기지표 점검 글은 헤드라인 아래의 가계 사정을 전한다. 9월 소비는 정체, 정부 이전지급을 뺀 실질 개인소득은 감소했고, 명목 소비와 명목 소득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월간 기준 0.1%포인트 밑돌았다. **[해석]** 3.4%라는 숫자와 4.9%라는 민간 수요가 그리는 경제와, 소득이 제자리인 가계가 느끼는 경제 사이의 온도차는 올해 내내 반복된 그림이며, 이번 속보치도 그 대비를 지우지 못했다. 인공지능 투자 붐이 국민계정의 위쪽을 끌어올리는 동안 아래쪽은 무거운 채라는 것 — 어제의 '숫자의 겉과 속'이 오늘은 국가 계정 단위로 다시 나타난 셈이다.

---

2. 관세의 무게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카페 하이에크의 하루는 우연찮게 '귀착(歸着, incidence) — 결국 비용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를 재는 숫자들로 채워졌다. 중심은 새 실증 논문 하나다.

[사실] 루오한 우(Ruohan Wu)의 새 논문은 2025년 미국 관세를 자연실험으로 삼아 수입 규제가 국내 소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측정했다. 방법은 두 겹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밍턴 모형(같은 품목이라도 국산과 수입산이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라고 보는 국제무역의 표준 틀)을 세워, 관세의 소매가격 전가율이 국내 공급 탄력성이 낮을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예측을 뽑았다. 실증적으로는 2024~2026년 미국 대도시권별 가격 자료를 이중차분법(정책 영향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변화를 비교해 순수 효과를 분리하는 기법)으로 분석해, 쇠고기를 다른 단백질 식품 및 일반 소비재와 대조했다. 결과: 관세는 쇠고기 가격을 약 8~11%, 파운드당 1.7~2달러 끌어올렸고, 모형이 예측한 대로 공급이 경직적이고 수입 의존이 큰 경우 타격이 컸다. 저자의 결론은 관세 평가가 총량 물가 효과만이 아니라 품목별로 고르지 않은 소비자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어서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는 정치적 문구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확인된 사례다. 같은 날 이 블로그의 '오늘의 인용'이 뽑은 새뮤얼

그레그의 신간 구절은 이론적 쌍둥이다 — 동정심에서 시작한 관세도 결국 더 비싼 값을 내는 소비자와 보복 관세를 맞는 기업에 상처를 입히며, 상대국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 관세는 외국인이 미국 수출품을 사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할 달러를 줄이기 때문에 일부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지다.

[사실] '몇 가지 링크' 코너에는 규모를 재는 산수가 두 개 더 실렸다. 첫째, 마이클 보스킨(전 대통령경제자문위원장)은 '정책 논쟁의 다섯 가지 속임수'를 정리하면서, 그 다섯 번째를 '정부 개입 성공의 오만(AGIS)'이라 이름 붙였다 — 이론적으로 그럴듯한 정부 해법이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면만 보고, 정부 실패(낭비, 규제 포획, 빗나간 표적 설정 등)의 가능성은 무시하는 논법이다. 그의 예시는 캘리포니아의 기후정책 산수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약 430ppm(백만분의 1)이고, 전 세계 배출을 다 합쳐도 해마다 약 0.7%씩만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의 배출은 전 세계의 약 1%. 그러니 캘리포니아가 기존 정책 효과 위에 추가로 30%를 더 감축한다 해도(큰 가정이다) 대기 농도 감소분은 0.01ppm 미만이다. **[해석]** 보스킨의 요점은 기후정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독 관할권의 정책 효과를 스케일에 맞게 진술하지 않으면 비용 대비 효과 논쟁 자체가 오염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최대 배출국)과 인도(3위, 미국은 2위)에 캘리포니아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비용이 정직하게 계수(計數)되지 않은 약속들이 오히려 기술·적응 중심 해법에 대한 역풍을 키웠다고 본다.

[사실] 둘째, 부유세 논쟁. 베로니크 드 뤼지는 '부는 먼저 쌓고 나중에 선행으로 갚는 것'이라는 상식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 시장경제에서 부는 세상을 먼저 낫게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800달러짜리 스마트폰 거래에서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 자기 기준으로 이득을 보고 헤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지의 받침돌로 인용되는 숫자가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추정이다: 1948~2001년 미국 기업 부문의 혁신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사회적 잉여 가운데 개인적으로 챙긴 몫은 평균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97.8%는 더 낮은 가격·더 높은 임금·새로운 재화의 형태로 모두에게 돌아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부유세) 반대 진영이 인용하는 행렬은 구체적이다 — 스필버그가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페이지와 브린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으며, 틸은 마이애미로 갔다. 누구도 '세금 때문'이라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노르웨이가 2021년 부유세를 1.1%로 올렸을 때 이듬해 30명 이상의 억만장자·다백만장자가 나라를 떠나 이전 13년치 합계를 넘었다는 기록이 따라붙는다. **[해석]** 2.2%와 노르웨이 이주 통계는 부유세 찬반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숫자지만, 최소한 '부유세는 대가 없는 이전'이라는 직관에 대한 실증적 견제구다. 카페 하이에크의 선택과 배열은 물론 이 논쟁의 한쪽 편에 서 있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둔다.

> **짧은 메모 — 서한 한 통.** [사실] 같은 블로그 운영자인 도널드 부드로는 의학 블로그 '사이언스-기반 메디슨'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를 주장한 학자들이 '위험을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노력'의 일부였다는 한 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자신의 입장은 조정된 캠페인이 아니라 통계와 경제학에 근거한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것이고, '조정자가 누구이며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해석] 5년 전 방역 논쟁의 상처가 아직 서한 형태로 오간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할 만한 신호다. 양쪽 모두 자신이 과학의 편이라 주장하는 논쟁에서, 반론의 존재를 '공모'로 설명하는 버릇이야말로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서한의 핵심 논지다.

---

3. 경범죄 유죄판결을 저울에 올리면 — 정밀하게 측정된 '0'

[사실] 미국에서 매년 접수되는 형사사건의 4분의 3은 경범죄(misdemeanor)다. 그런데 경범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의 삶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은 드물었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소개한 니킬 라오와 제임스 리브스의 새 연구는 11개 주 약 700만 명의 피고인 행정자료에 설문을 결합하고, 유죄판결률을 급격히 낮춘 7개 카운티의 개혁을 자연실험으로 활용했다. 방법은 회귀불연속설계(RDD)다 — 기소 후 유죄판결로 넘어가는 문지방 바로 위아래의 피고인들은 거의 동질이므로, 문지방을 넘느냐 마느냐의 순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설계다. 결과는 '정밀하게 측정된 0'이다. 개혁은 형사처벌 결과와 노동시장 결과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아무 효과를 내지 않았다. 기소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은 재범하지도 않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 문지방에 걸리는 '한계 피고인'들은 평균적인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더 경미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질성 분석에서는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젊은 피고인과 초범 피고인에게는 유죄판결이 분명한 해를 입혔다. 저자들의 계산으로 경범죄 유죄판결의 공공자금 한계가치(MVPF — 정부 지출 1달러가 사회에 돌려주는 편익을 재는 지표)는 음수다. 일반 억지 효과를 그럴듯하게 잡아 넣어도 그렇다.

[해석]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이 아무 쓸모없다'가 아니라, 지금의 문지방이 잘못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평균의 0은 두 집단의 상반된 효과가 상쇄된 값일 수 있고, 실제로 이 연구는 그 상쇄를 보여준다. 처벌이 해를 입히는 집단(젊은이, 초범)에게 기소유예를 표적화하면 순편익이 생긴다는 정책 제안은 저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종류의 것이다. 범죄정책 논쟁이 흔히 '엄벌 대 관용'의 언어로 오가는

것과 달리, 이 논문은 '누구에게 어떤 처분이 효과가 있는가'의 언어로 옮겨 가는 미국 형사사법 연구의 최근 흐름에 놓인다.

---

4. 생명을 연수(年數)로 환산하다 — 신장 이식 정책의 회계

[사실] 미국의 장기 적출·이식 시스템은 오랫동안 비효율의 표본이었다. 마지널 레볼루션이 다시 꺼내 든 통계들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장기 이송 계약자는 항공사가 수하물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킬 확률의 15배로 장기를 분실·손상했고, 소포에는 실시간 추적이 의무화된 시대에 장기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 가장 기괴한 숫자는 이것이다 — 신장의 17%가 이식되기 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최소 한 번 이식 제안이 갔다. 환자 추적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면 명단 위의 죽은 사람에게 제안이 가고, 그 사이 살아 있는 대기자의 기회가 지연된다.

[사실] 개선의 출발점은 2019년 7월의 행정명령 13879호('미국 신장 건강 진흥')였다. 장기적출기관(OPO)에 성과 지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존 기증자의 비용 회복 폭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집행에 몇 년이 걸렸고 성과 기준의 집행은 2026~2027년으로 미뤄졌지만, 미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연구실(ASPE)이 10월 20일 낸 분석(리포트에서 확인)은 이런 추정을 내놓는다. 이 정책 패키지와 연관된 추가 이식이 연간 1,055건(보수 추정)에서 2,110건(상한 추정)이며, 2019~2040년 누적으로 23,214~46,428건의 추가 이식, 147,410~294,819명년의 수명 연장, 21,821~43,643의 질조정생명년(QALY — 생존 연수에 삶의 질 점수를 곱해 건강 편익을 재는 표준 단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현재가치 1,030억~2,060억 달러, 2026년 이식 1건당 약 470만 달러다. 실제로 미국의 연간 신장 이식은 2002년 14,781건에서 2025년 27,574건으로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8년의 2.6%에서 2019~2025년의 2.8%로 올랐다. 상당수 기관은 이제 신장 이송을 GPS로 추적한다.

[사실] 가장 큰 다음 단계로 꼽히는 것은 생존 기증자에 대한 지급 허용이다. 하원 법안 2687호('신장사망 종식법')는 지정하지 않은 수혜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5년에 걸쳐 5만 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투석은 유지 비용이 매우 크고 그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메디케어의 신부전 특별 급여)가 부담하므로, 이 법은 생명을 살리면서 동시에 납세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지지 논리다. **[해석]** 이 꼭지의 회계는 저울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준다. 수명 연장과 QALY, 심지어 '투석에 쓰지 않게 된 연 671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은 정책 비교를 가능하게 하지만, 상한과 하한의 격차(2배)가 말하듯 '정책이 아니었어도 일어났을 증가분'을 얼마로 잡느냐에 모든 숫자가 달려 있다. 그럼에도

방향은 일관되다 — 장기 부족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설계 문제였고, 인센티브를 바꾸자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5. 연구 자체를 재는 AI

전날 이 리포트의 첫 꼭지가 'AI로 연구의 오류를 감사하는' 시도들이었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실험이 보고됐다. AI로 아직 나오지 않은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사실] 마지널 레볼루션이 '올해 가장 중요한 논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개한 에바 비발트의 새 연구는 이렇게 설계됐다. 미국경제학회 실험등록소(AEA RCT Registry)와 열린과학틀(OSF)에 사전등록된 연구 가운데 2026년 1월 이후 결과가 공개된 논문들을 골랐다. 사전등록 문서에는 '이 실험으로 무엇을 재겠다'는 예측 문항이 미리 적혀 있다. 그런 다음 훈련 자료 마감일이 그 논문들의 공개 이전인 대규모 언어모형들에게, 사전등록 문항만 보고 처치효과(개입이 결과에 미친 효과의 크기)를 예측하게 했다. 결과가 나중에 공개되면 예측의 정답지가 생기므로 정확도를 채점할 수 있다. 39편에서 889개의 처치효과를 뽑아 예측했고(표준화 가능한 것만 추리면 33편 673개), 가장 잘한 모형의 중앙 절대오차는 0.054 표준편차, 평균 절대오차는 0.093 표준편차였다. '효과는 0'이라고 예측하는 상수 예측이나 '같은 시기 다른 논문들의 평균 효과'로 예측하는 기준선보다 훨씬 정확했다. **[해석]** 이 결과가 버틴다면 의미는 크다.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실험이 낼 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이미 예측 가능한 실험에 드는 수백만 달러를 비발트의 표현대로 '불확실성이 크고 상승 잠재력이 큰' 연구로 옮길 수 있다. 연구비 배분과 정책 설계의 입찰 과정에 '예측가능성'이라는 새 축이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단일 연구의 결과이고, 표본은 사전등록 문화가 잡힌 분야의 실험들로 기울어 있다.

[사실] 같은 블로그의 타일러 코웬은 대학전문지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에서의 AI 실험 설계를 제안했다. 한 학기에 딱 한 과목, 'AI 전용 수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 교수 없이 학생이 AI와 공부하고, 교수는 마지막에 시험 답안이 아니라 '학생이 AI를 어떻게 써서 명예혁명이나 남북전쟁을 배웠는지' 그 작업 과정(workflow)을 채점한다. 언젠가는 다른 AI가 그 학습 로그를 채점하겠지만 일단은 교수가 하자는 것이다. 성공하면 두 과목으로. 그의 근거는 직설적이다 — "학생들은 교수보다 AI를 더 잘 안다." 학교마다 다른 정책(전면 금지 포함)을 실험하게 하고 경쟁 과정에 맡기자는 입장이며, 전면 금지 학교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들에 베팅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좋다고 말한다. **[해석]** 채점의 대상을 '답'에서 '과정'으로 옮기는 이 아이디어는, AI 시대의 평가가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작은 단위로 보여 준다. 학교들이 이 제안을 싫어하는 이유를 그가

스스로 짚은 대목 — "일부 교수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문을 여는 것" — 도 정직한 인정이다.

[사실] 전날 꼭지의 후속 하나. 마지널 레볼루션의 목요일 링크 모음(이 리포트에서는 생략한 1편)의 일곱 번째 항목은 두 가지를 소개한다 — 피케티-사에즈-주크만 계열 편향을 인간 연구자들이 먼저 발견했다는 지적과, 일론 머스크 계열 AI인 그록(Grok)이 '최초의 AI 감사 보고서가 주요 문제들을 제대로 포착했는지'를 다시 감사한 작업. **[해석]** 어제 전한 익명 감사 프로젝트의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감사에 대한 감사'와 '사람이 먼저였다'는 우선권 논쟁이 곧바로 따라붙는 속도 자체가, AI 시대 학문 검증 생태계가 어떻게 다층화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본 항목은 해당 블로그 피드 본문의 링크 소개에 근거한 2차 인용이며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

6. 저울에 오르지 않는 것 — 노리치의 줄리언, 26장

[사실] 실험적 신학 블로그의 노리치의 줄리언 통독 시리즈는 26장에 이르렀다. 14세기 영국의 은수자 줄리언이 기록한 열여섯 번의 '현시(showing)' 가운데 열두 번째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연속된 문장으로 선언한다 — "나다, 나다, 가장 높은 이가 나다,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나다, 네가 기뻐하는 이, 네가 섬기는 이, 네가 갈망하는 이, 네가 바라는 이, 네가 뜻하는 이, 모든 것인 이가 나다…" 줄리언은 고백한다. "그 말씀들의 수는 나의 지혜와 이해와 힘을 모두 넘어선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들의 내용을 더 풀어 적지 않는다 — "그 안에 담긴 것을 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현시에서 본 기쁨은 마음이 바라고 영혼이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실] 글쓴이는 이 장을 데니스 터너의 『신의 어둠』 이 분류한 부정신학(apophatic mysticism — 신을 '무엇인가'로 말하는 대신 '무엇이 아닌가'와 침묵으로 다가가는 신비주의 전통)의 두 길로 읽는다. '모순의 길'은 신에 대한 긍정적 명제를 세우고 다시 부정하고, 긍정과 부정의 사다리를 오르며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언어 고갈의 길'은 형용 불가능한 것을 형용하려고 말을 쏟아붓다가, 마침내 말이 스스로 지쳐 멈추는 지점에서 신을 만나는 방식이다. 터너는 줄리언을 후자의 대표로 꼽고, 26장의 "말씀들의 수가 나의 지혜를 넘어선다"는 고백은 이 길의 교과서적 장면이다. "나다"의 반복이 쌓이다가 마침내 서술을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이 장의 구조 그 자체다.

[해석] 하루의 마지막에 이 장이 놓인 것은 우연이지만 묵직하다. 앞의 다섯 꼭지는 모두 저울의 승리와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 성장률을 재고, 관세의 전가를 재고, 처벌의 효과가 0임을 재고, 생명을 연수로 환산하고, 나오지 않은 결과까지 예측으로 재는. 줄리언의 26장은 저울이 근본적으로 설 수 없는 자리, '말할 수 없어서 더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이 되는 자리를 보여 준다. 측정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토를 아는 것이 둘 다의 정직함이라는 것 — 오늘의 피드가 나란히 놓아 준 대비다.

오늘의 필독 링크

· 미국 3분기 GDP 3.4% 분석 (Econbrowser):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0/u-s-gdp-grows-more-in-q3

· BEA GDP 속보치 원문: https://www.bea.gov/news/2026/gdp-advance-estimate-3rd-quarter-2026

· 관세와 쇠고기 가격 논문 소개 외 (Cafe Hayek): https://cafehayek.com/2026/10/some-links-3222.html

· 경범죄 유죄판결의 인과 효과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are-there-too-many-misdemeanor-convictions.html

· 신장 이식 인센티브 개혁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better-incentives-more-kidneys-more-lives.html

· ASPE 신장 이식 편익 분석 원문: https://aspe.hhs.gov/reports/health-economic-benefits-associated-increased-kidney-transplantation-following-advancing-american

· AI의 처치효과 예측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can-artificial-intelligence-forecast-treatment-effects-in-economics.html

· AI와 대학 교육 인터뷰 (Marginal Revolution):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chronicle-of-higher-education-interviews-me-on-ai-and-education.html

· 줄리언 26장: 언어 고갈의 길 (Experimental Theology):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al-shall-be-wele-chapter-26-nombre-of.html